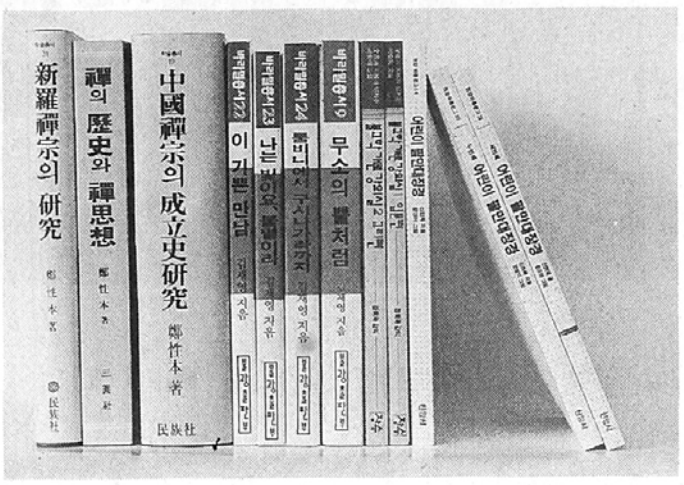
기획집필가 저술 '활발'

신현득씨 「어린이팔만대장경」
권영한씨 「예불하는 마음에…」
장휘옥씨 「불교학개론 강의실」
김재영씨 「불자수행 교본 시리즈」
성본스님 「신라선종연구」 등 학술서



기획집필가들의 활발한 저술활동이 불서출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획집필은 특정분야 또는 주제를 놓고 적게는 3권에서 5권까지 이르는 분량의 저작을 생산해내는 저술형태로, 성본스님 김재영 장휘옥 신현득 권영한씨 등이 기획집필가로 꼽힌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기획시리즈는 필자 마다의 독특한 관점과 서술방법으로 다소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지닌다면, 개인의 기획집필은 일관된 체계와 구성으로 알찬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고생 및 청소년 포교활동을 펼쳐온 김재영씨(동덕여고 교사, 청보리회 상주법사)는 '불자수행교본' 시리즈를 펴내고 있다. 이 시리즈는 입문 및 수계과정에서 기초 중급 고급 보살과정에 이르기까지 8권으로 기획, 집필중이다. 지금까지 〈이 기쁜 만남〉〈나는 빛이요, 불멸이라〉〈룸비니에서 구시나가라까지〉〈무소의 뿔처럼〉〈이상 불광출판부刊〉을 펴냈다.

〈이 기쁜 만남〉은 입문·수계과정으로 불자들이 오계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나는 빛이요…〉는 기초과정으로 수계불자들이 '선우불자'의 단계로 나아가는 수행과정을 담고 있다.

김재영씨는 이들 책을 "실천적이며 단계적인 불자들의 수행교본"이라고 소개하고 "각 장마다 한가지씩 제시되어 있는 '실천수행'을 실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장휘옥씨(동국대강사·불교학)의 '불교학개론 강의실' 시리즈(불교시대사)는 교학적 측면이 두드러진 특성을 보여준다. '입문편' '교리편'에 이어 '중국·남방불교편'과 '한국·일본불교편'을 계속 펴낼 예정이다.

장씨는 "불교를 좀 안다는 사람들은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불교를 선호하고,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렵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며 "불교의 본래면목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 '불교학개론 강의실' 시리즈"라고 밝혔다.

성본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선불교에 대한 일관된 관심을 보이며 최근까지 〈중국선종의 성립사연구〉(민족사) 〈선의 역사와 선사상〉(삼원사) 〈신라선종의 연구〉(민족사) 등의 무게있는 학술서를 펴냈다.

성본스님은 "불교의 정신을 자각적인 체험을 통하여 각자의 일상생활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종교가 곧 선불교"라고 강조하고 "지금까지는 선의 역사와 사상을 고찰했다면, 앞으로는 선불교의 실천적 측면, 즉 선실천의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는 주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들을 위한 불교동화 창작에 전념해온 아동문학가 신현득씨는 〈어린이 팔만대장경〉(현암사, 전3권)을 펴낸 데 이어 팔만대장경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설화를 동화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사찰의 각종 건축물과 석물에 대한 안내와 참배방법, 사찰예절 등을 소개한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전원문화사)을 펴낸 권영한씨(안동 경안중교사)는 사찰의 벽화와 편액을 알기 쉽게 설명, 불교와 불교문화를 친숙하게 안내하는 책을 펴낼 예정으로 집필중이다.

이러한 기획집필에 대한 민족사대표 윤재승씨는 "개인의 기획집필은 불교에 대한 애정이 바탕이 된 가운데 풍부한 불교적 소양이 갖춰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불교학 및 불교출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집필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불교학·출판계 질적향상 기여

화제의 책

논쟁으로 보는 한국철학

김교빈외 지음

역사이래 한국에서 숱한 철학행위가 이루어져 왔지만, 지금까지 그에 대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정리작업은 물론 주요 쟁점들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논쟁으로 보는 한국철학〉은 한국의 전통 철학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벌여왔던 불교 내부의 이론 논쟁을 비롯해 성리학과 불교 사이의 논쟁 등을 11개 부분으로 정리했다.

선교·돈점통해 한국철학 흐름정리

'교선(敎禪) 논쟁 – 이론과 실천의 어울림, 그 이중변주'(유흔우·동국대강사)는 대각국가 의천과 보조국사 지눌의 이론을 비교, 두 스님 모두 원효스님의 '합침의 불교'를 계승하면서도 교종 또는 선종 중심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밝혔다. 또 돈점논쟁에서는 지눌스님과 성철스님의 사상적 차이를, 유불논쟁에서는 현세적 가치와 출세적 가치의 대립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예문서원, 7천5백원〉

지관의 이론과 실천

남악혜사 지음

자유자재한 절대의 경지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천방법과 이에 따른 수행이 뒤따라야 한다. 불교내에서도 다양한 수행법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간명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수행법으로 꼽히는 것이 지관법이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지관 수행법

〈지관의 이론과 실천〉은 남악혜사스님의 〈대승지관법문(大乘止觀法門)〉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원문을 일정한 단락으로 나눠 번역과 해설을 붙였다.

대승지관법은 초기불교의 위빠사나 수행법으로부터 대승지관으로 이어져 북조선과 조사선에 이르기까지 이론적이로나 실천적으로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다.

'지(止)'란 마음 가운데 정적(靜的)인 요소를 극대화시키는 과정이며, '관(觀)'이란 의식이 대상을 향해 관조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동적인 부분을 다스리는 과정을 말한다.

〈원경 옮김, 삼양, 6천9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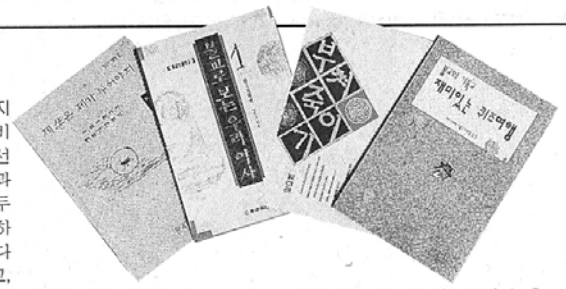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알게 모르고 모르게 알고	원의범	시공사
2	금강경 강의	무비	불광
3	미라래빠	에반스웨츠	고려원미디어
4	숫타니파타	법정	샘터
5	천수경	무비	불일
6	알기 쉬운 불교	편성부	불교방송
7	영원한 자유의 길	성철	장경각
8	어린이 천수경	김호성	불광
9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권영한	전원문화사
10	술몽쇄언	김대현	을유문화사

구입문의:(02)737-0695

새로나온 책



▲제 똥은 제가 누어야지(지묵 외 지음)=지묵 영담 무비 효림 여연 원택 동봉 현장 선혜 법연 도법스님 등 수행과 포교현장에서 정진중인 열두 스님의 산문집. 때로는 슬퍼하고, 계절의 허무를 느끼며, 다른 이들을 놀려주기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는 스님들의 일상의 손때와 무게가 고스란히 실린 글들을 모아 엮었다. 〈민족사, 4천5백원〉

▲부처죽이기(임원용 엮음)=한국불교 역사속에서 큰 자취를 남긴 스님들의 짧은 일화를 묶었다. '재미있는 고승이야기'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40여명 스님들의 삶을 현학적이고 사상적인 고승의 모습으로보다는 할아버지 또는 친구같은 스님들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구성했다. 〈여래, 5천5백원〉

▲불교로 보는 우리역사(서경보 지음)=철학은 물론 문학 예술 정치 풍속과 관습에 이르기까지 불교와 불교문화가 우리 역사에 끼친 영향을 밝혔다. 1권은 삼국시대편으로 '금강산과 불교의 인연' '흥륜사 보현보살' 등 92개 일화를 제시했다. 〈호암출판사, 6천원〉

▲걸망 하나로 넘는 세월은(성목 지음)=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출가와 출가 후의 수행과 도반들과의 관계에서 느낀 것들을 그때그때 글로 엮은 지은이의 수필집. 〈씨와날, 5천8백원〉

▲불교와 기독교 재미있는 퀴즈여행(히로사치아 지음)=불교와 기독교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두 종교는 어떤 견해와 차이점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객관적으로 다뤘다. 십자가와 불상, 천국과 극락 등은 어떻게 다른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이 물음에 답하는 서술방법을 택했다.

〈하유상 옮김, 민족사, 4천5백원〉

명사추천 불서 100선

서산대사의 '선가귀감'

김봉우
(반민족문제연구소장)

내 고등학교 시절은 기존의 풍토에 반항하고 회의하면서 삶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갈등과 방황으로 점철된 시기였다. 나를 덮어 누르는 사회의 낡은 인습과 반인간적 틀안에 가두어 버리는 교육이라는 이름의 억압장치를 나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 인간을 아주 단순한 소도구 내지 소모품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조차 없는 생명의 귀중함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나는 국민학교 시절부터 어른들의 역사책과 교양서로 밤을 밝히기 일쑤였다. 아버지께서 보시던 〈사상계〉를 밤을 하얗게 밝히며 읽었다. 그럴 때는 제법 무엇을 체계있게 아는 것도 같았고 사회에 대한 이해도 깊어진 듯 했다. 중학교에 가서는 별로 많지도 않던 역사 전문서적을 거의 읽고 체계를 잡으려고 꿈꿔보기도 했으나 문득 그 시기부터 닥친 삶과 죽음의 갈등은 나를 무척이나 괴롭혔다.

고등학교에 가서는 죽음의 고뇌와 공포라는 원초적 요소를 극복하려고 무척이나 발버둥을 쳤다. 그것은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했고 지식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 시기에 많은 불경을 읽었다. '凡所有相皆是虛妄若見諸相非卽見如來'라는 금강경 4구게에 흠뻑 젖기도 했고, 법구경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원문을 외면서 낭송하기도 했었다. 그때 읽었던 것 중의 하나가 〈선가귀감〉이었다. 나와 우주의 참모습을 깨우쳐 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떠나고도 싶었고 무지와 욕망과 갈등의 사슬을 끊고도 싶었던 소망이 참으로 간절한 때였다.

〈禪家龜鑑〉을 쓴 이는 우리 역사상 무척이나 이름높은 사산대사 휴정이다. 대사는 왜적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전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은 참으로 처절한 생지옥이요 아수라장이던 임진왜란에 승병을 이끌고 참전하여 생명의 씨를 이 땅에 보전시킨 분이다. 그의 제자로는 역시 저 유명한 사명당 유정을 비롯해서 처영(處英)과 영규(靈圭)등이 있다. 〈선가귀감〉은 그의 여러저술 중의 하나이지만 사명당이 일본에 전하여 오히려 일본에서 무려 180종의 판본이 나온 책이다. 대사는 책머리에서 "옛날 불법을 배우던 이들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면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 불법을 배우는 이들은 벼슬아치의 가문들을 받아다가 심지어는 붉고 푸른 종이로 받치고 비단으로 꾸미어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게 여기며 이것들을 보배로 삼고있다"고 개탄하였다. 대사는 바로 이런 미혹과 욕망의 바다에 빠져있는 불자들을 구하고자 〈선사귀감〉을 집필하였다. 이 귀감을 엄한 스승으로 삼아 갈고 닦아 묘한 진리를 얻는다면 글귀마다 석존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대사는 가르치고 계신다.

나는 당시 참으로 깊은 방황속에서 내 마음의 안정과 진리를 갈구하여 좋다는 많은 책들을 밤을 밝히고 읽었으나 번잡한 말재주나 지엽말절의 사안에 집착한 책들이 대부분이었고, 아니면 무조건 인간의 탐구와 창조의식을 내리누르고 자르는 책들 투성이었다. 그런 속에서 나는 이 보배로운 경전을 만나 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후 오늘까지 몇 십년간을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한길에 몰두하고 있다. 참으로 고마우신 은혜이다.

미혹 빠질때마다 안정 찾아줘
일본에서 1백80종 판본 나와

7가지 색상으로 제작했습니다.

부처님 오신날 현수막 제작 보급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국민적 축제인 부처님 오신날에 전국 각 사·암단위로 설치하는 현수막을 본 감로기획에서는 두터운 불심을 바탕으로 현대 감각에 맞게 제작하였습니다.
현수막은 옥외설치용 장엄물로 불자는 물론 전국민의 시야가 집중된 불교위상의 중요한 부분이라 사료되어 본 감로기획에서는 완벽한 디자인과 최고의 제품을 제작 보급합니다.

불기 2539년 5월 7일 (음) 사월 초파일
봉 부처님 오신날 축
조 계 사

■ 크기 및 보급가 / 90cm×6m · 35,000원 / 90cm×8m · 45,000원

봉축 어깨띠
(3색칼라, 고급공단으로 제작)
※ 100매 이상 제작시 사찰이름 넣어드립니다.
(1매에 2,500원)
※ 색상 : 노랑색, 핑크색, 흰색

봉축 꽃 리본
※ 꽃 리본 100매 가격
수동식 리본은 20,000원
기계식 리본은 30,000원 입니다.
(기본 100매)
※ 색상 : 꽃분홍, 분홍, 빨강, 녹색, 청색, 노랑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 로타리)
☎(02)723-4306~7 FAX : 738-8682

부처님 오신날 설법자료, 홍보책자 보급안내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 탄생이야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인등의 유래와 공덕,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 하였으므로 초파일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인등권선을 할 수 있으며, 초파일 전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 내용
제1부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발원문
1.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발원문
2.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회 식순
제2부 부처님 탄생
1. 전생이야기
2. 탄생이야기
3.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제3부 등을 밝히며
1. 등을 밝히는 뜻
2. 등을 밝히게 된 유래
3. 등의 종류
4. 등을 밝히는 행사들
제4부 관불의식
1.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제5부 등불공양의 공덕
1. 등불 공양의 공덕
2. 등불 공양에 얽힌 이야기들
3. 윤거사의 등공양

연등공양 이야기

※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부처님의 생애

※ "연등공양 이야기" 책자를 법보시 한 사암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생애"를 법보시 하시기 바랍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인사말, 사찰명, 법보시자, 법회 안내 등을) 추가로 활애, 인쇄하여 드립니다.
◎ 초파일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보시 특가 / 1권당 1,000원
크기 / 신국판 × 66페이지
◎ 접수마감 / 5월 1일까지
(미리 접수 바랍니다.)

■ 온 라 인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주택은행 679802-93-112523
한일은행 170-105243-12-003
조흥은행 322-04-190572
예금주 선 문 빈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 로타리)
☎(02)723-4306~7 FAX : 738-8682